

지방자치·종합

■ 윤봉근 광주시의회 12대의장

“지방공기업 대표 인사청문회 검토”

제6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윤봉근(53·민주·광산 1)은 “민주·평화·인권의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광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합리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소통하는 의회 ▲시민여론 수렴 ▲전문성 강화 ▲생활정치 구현 ▲의원들의 의정활동 적극 지원 ▲생산적 의회 구현 등의 의회운영 방침을 제시했다.

시의원 초선인 윤 의장은 전교조 교사 출신으로, 광주 서구의 원과 시 교육위원, 시 교육위원회 의장 등을 지냈다.

다음은 윤 의장과의 일문일답. -의장에 당선된 소감은.

▲어깨가 무겁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봤듯이 광주시민들이 광주시의회에 바라는 기대가 크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26명의 시의원과 의거투합해 시의회다운 면모를 만들어가겠다.

-‘초선 의장’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앞으로 시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3선과 재선 의원들의 경륜을 잘 활용하고, 초선 의원들과 함께 화합하고 단결해서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민노당 소속 의원과 교육의원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더 대화하고 토론할 것이다. 당적을 떠나 모든 의원들이 팔팔 똘똘 좋은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특히 총 26명의 의원 중 22명이 초선이라서 불안하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는 가우에 불과하다. 나도 시의회 경륜은 없지만, 구의원·교육위원 등을 지낸 4선 의원이다. 일부 초선의원들도 구의회 의원 출신들이어서 충분히 시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집행부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생각인지.

▲양 수레바퀴처럼 상생하도록 하겠다. 의회의 본래 기능이 견제와 감시기기 때문에 그 끈은 놓지 않을 것이다.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상임위원장 선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도록 할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특별한 위원만이 만큼 개인적으로 교육위원장은 교육의원 중에서 선출되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노당도 정치력을 잘 발휘해 의원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등 특목에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 개인적으로 민노당 의원도 상임위원장에 선출되면 좋겠다.

-의원 인턴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견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좌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다.

서울시의회와 같은 인턴 보좌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보좌관제 국회와 통과되기 전 까지만 인턴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시민들 사이에 예산낭비라는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인턴 보좌관을 통해 의정활동을 넓히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로 봐줬으면 한다.



민노당·교육의원과 더 많이 대화·토론 할 것

견제기능 복원...상임위, 민주당 독식 않겠다

-지방공기업 대표에 대한 인사 청문회 도입 이이7기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정실인사가 아닌 좋은 인물이 공기업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노당 의원들의 공약이기도 하다. 절차가 남아있지만, 앞으로 의회 중지를 모아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다.

-민주당 내 전반기 의장 후보 경선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시 의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 자리 나눠먹기에 대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 의장 임기 동안 국회의원 등 어떤 세력의 외압도 받지 않을 것이다.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변화와 혁신으로 광주시정을 선도하는 역동적인 의회 상을 만들고,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의 전문가,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만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테니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제6대 광주시의회가 6일 오후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원식에 앞서 전반기 의장에 윤봉근 의원을, 부의장에 정현애·이은방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선’ 주류로...집행부 견제 강도 높아지나

제6대 광주시의회 개원...초선 역할이 의회 위상 좌우

의장단 선출 등 이미 내부 조율 완료...기대·우려 교차

제6대 광주시의회가 6일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함께 개원식을 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회는 상당폭 물갈이가 이뤄져 ‘풀뿌리 지방자치’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초선의원이 의장단을 차지하고 향후 상임위원장까지 ‘싸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6대 의회에 거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 윤봉근 의장 체제를 만들어 내며 사실상 의회 내 ‘주류’로 떠오른 일부 진보성향 초선의원들의 행보에 따라 의회 위상이나 역할이 좌우될 것으로 보여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집행부 견제 강도 높아질까?=지난 의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보다는 이른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윤봉근 의장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은 의회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제6대 시의회 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바람이 기대된다.

특히 의회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당수 초선의원들이 대외 운동권 출신의 진보성향이라는 점에서 집행부와 관계도 우호적이라기보다는 긴장관계가 예상된다. 또한, 과거 의회가 집행부에 지나치게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의식해 개원 초반부터 집행부에 대한 강한 견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선의원들의 역할에 따라 제6대 광주시의회 의 위상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겉으로는 공정·투명, 내부적으로는 ‘조각’=제6대 광주시의회 원구성에 앞서 민주당 일부 초선의원들은 공개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6일 열린 의장단 선거결과를 보면 초선의원들의 행보에 우려감을 나타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외부적으로는 의원들의 자율 투표로 보였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미 ‘조각’이 뒀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상상 유례없이 비례대표 의원을 제1부의장으로 선출한 것이나,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표의 흐름이 눈에 띄게 두드러진 것도 이를 반증한다. 1차 부의장 선거에서 비례대표 정현애 의원에겐 14~15표가 2차 투

표에서는 이은방 의원에겐 그대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이는 윤봉근 의장 체제를 이끌어 ‘주류’로 떠오른 초선의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정 의원의 부의장 선출은 윤봉근 의장을 지지한 데 대한 ‘보은(?)’ 성격이 짙으며, 이 의원은 ‘비주류’ 측에 대한 배려라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이런 흐름은 상임위원장단 선거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개 상임위원장 중 교육위원장을 제외한 4개 위원장 가운데 3개 위원장은 ‘주류’ 측이 나머지 1개는 ‘비주류’ 측에서 차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1석을 ‘비주류’ 측에 나눠주는 이른바 ‘구해 맞추기’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반면, 과거와 달리 주류와 비주류가 뚜렷해 의장을 잡은 측이 ‘싸움’ 했지만, 이번에는 민주적 방식에 따른 투표로 이뤄지고, 의원 상호 간 ‘조율’을 통한 노력이 보였다라는 긍정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민노당등 한 의원은 “의장단 선거과정 이 너무 티가 난다”며 “앞으로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초선 주류 측이 다선의원들을 비롯한 비주류 측과 민노당·교육의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이할지가 향후 광주시의회 운영의 가능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권장 온도’ 어기는 대형건물에 과태료

대형마트 크기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들은 이번 여름부터 정부가 권장하는 실내 냉방 온도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에너지 절약 목표치를 연초 설정한 400만TOE(석유환산톤)에서 500만TOE로 높이는 내용의 하반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확정해 시행한

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000 TOE 이상으로 대형마트 정도 크기의 대형 건물 586곳의 권장 냉방온도(일반건물 26도·관내시설 등은 25도) 준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자동차 운행 요일제를 내년부터 광주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등 다른 광역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062-236-3400. Real estate listings and services.

금당 공인중개사 T.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Real estate brokerage services.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Real estate services.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Real estate services.